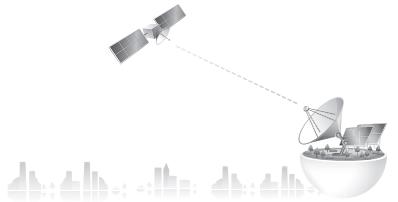


# 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 살모넬라 식중독 사태가 준 교훈 HACCP 인증 제도 사후관리 부실

지난달 초 학교급식으로 제공된 초코케이크를 먹은 식중독 학생 피해자들이 2천여명을 넘기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당시 식중독의 원인이 '살모넬라'로 밝혀지면서 마치 계란으로부터 기인된 것처럼 보도가 되어 양계업계를 긴장시킨 바 있다. 다행히 일반 살모넬라균으로 밝혀졌지만 지난해 계란 살충제 검출에 이어 또 한 차례 계란 파동을 겪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것이 사실이다. 추석을 앞둔 성수기철이라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본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해 추측 성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언론사에 긴급 요청하면서 수습에 나섰으며 일반 살모넬라균에서의 검출보도가 나오면서 닭과 계란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계란과 닭고기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살모넬라균은 엔터라이티디스(Salmonella enteritidis)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자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균은 살모넬라 톰슨(Salmonella thompson)균으로 다소 생소한 박테리아균이다. 식중독(食中毒)은 병원성 세균, 독소, 바이러스, 프리온, 기생충, 화학물질, 자연독 등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말한다. 이 같은 오염은 대부분 음식물의 부적절한 취급, 준비, 저장으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계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다면 확률이 높은 살모넬라균은 두 가지 정도로 꼽힌다. 살모넬라 갈리나룸(Salmonella gallinarum)과 살모넬라 엔터라이티디스(Salmonella enteritidis)다. 이 두 균은 짧게 SG, SE로 불리는데 모두 살모넬라균이지만 SG(살모넬라 갈리나룸)는 가금티푸스를 유발하는 균이어서 많은 양계농장들이 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육성기에 예방접종(백신)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 예방시스템은 물론 GP 등 세척, 건조, 멸균 등의 과정을 거쳐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은 살모넬라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번에 케이크를 만든 업체는 해썹(HACCP)마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계란은 유통과정과 제조과정에서 작업장의 상태와 작업

자의 위생상태에 따라서도 오염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HACCP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만은 아니다. 정부의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 규정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양계산물에 안전성이라는 명목으로 제제만 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계란 살충제 검출, 식중독 사태를 거울삼아 양계산물 안전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 AI 특별 방역기간 돌입 조기경보시스템 작동이 중요하다

AI 특별방역기간에 돌입했다. 기울로 접어들면서 철새 이동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AI 발생 가능성이 여름보다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농장 감염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 조기경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과거 모 대학에서 야외철새로부터 AI 바이러스가 조기에 발견되었음에도 중앙정부가 뒤늦게 알아 농장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농장을 중심으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장 자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진단법을 개발하여 이상증상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AI 확산을 막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닭의 체온과 울음소리 등을 감지해 질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조기경보시스템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전 모니터링을 위해 겨울철 오리의 출하전 검사 또는 도축장 HPAI 검사강화도 주요하며 이제는 육계의 경우 95%이상이 계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열주체의 방역관리 의무 및 책임도 크게 따를 것으로 본다.

AI 발생 시 신속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전문 방역요원을 양성하여 스탠드스틸(Standstill) 발동 여부나 AI 살처분 시 위험성을 분석하여 신축성 있게 살처분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2016년 이후 긴급백신접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이 덜 해지는 감이 있다. 정부에서는 항원뱅크 구축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신 개발 및 생산, 접종 시스템 확립 등 다각도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양계**